Eun Jeon Park (Lydia) - Korea

뉴질랜드에 온지도 어느덧 8개월이 다되갑니다. 영어에 자신감이 없던 제가 이제
어느정도 웃으며 외국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을 느낄 때면, AUT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절한 선생님들과 다양한 국적들의 친구들은 소극적인 제성
격을 충분히 배려해었고, 덕분에 많은 저의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도보 10분거리의 AUT전용 기숙사에 살아서 교통의 불편함도 없고, 주위환경도 깨끗하고 안전해서 저에게 딱 맞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어학원을 선택할 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대학교 부속시설이라는 점에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지금껏 AUT를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뉴질랜드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